

# 日선 “롯데, 韓기업”이라며 불매… 후 “한국회사 맞다”

〈신동빈 롯데 회장〉

▶▶ 1면 ‘동북포 패권다툼…’서 계속

사드 댄 中, 日보복뎀 양국서 피해  
日과 합작 브랜드 다수 보유로  
韓 소비자에 일본기업으로 오해  
롯데지주 출범…日롯데와 선 그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오후 한 소비자가 서울 시내 대형마트 주류 진열대에 놓여 있는 일본산 맥주 재고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롯데그룹을 둘러싼 국적 논란이  
포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드 보복 당시 애국 기업으로 칭송  
받던 롯데가 한일관계 악화 국면에선  
다시 일본기업으로 일부 지목 받으며  
좋지 않은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대중  
들의 입장에서 보면 롯데를 일본 기  
업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  
어 보인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99%  
를 모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  
한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  
에 일본 기업과 합작사 형태로 진출한  
브랜드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된 뒤 롯데의  
주류, 식품, 유통, 패션 사업들이 영  
향을 받았다. 일본 기업과 함께 국내  
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문제가 됐다.

불매 기업 1순위에 오른 유니클로를  
보면, 유니클로 한국법인 FRN코리아  
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  
데쇼핑이 49% 지분을 나눠 갖고 있  
다. 무인양품 한국 합작법인 무인코리  
아도 일본 양품계획과 롯데상사가 지  
분을 각각 60%, 40% 보유하고 있  
다. 아사히맥주

를 파는 롯데아사히주류도 일본 아사  
히 그룹홀딩스가 50%, 롯데칠성음  
료가 5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  
다.

허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  
쇼핑의 경우 유니클로 실적 타격 시  
지분법 이익이 감소하지만 롯데쇼핑  
채널 자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라며 “다만 반일감정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의 기존점 매출 감소를 가  
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중국 사드 보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롯데는 현재  
한·중·일 3국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삼중고다.

### ◆롯데는 한국기업

사드 보복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와 일부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현재의 롯데는 지분구조나 그룹 사  
황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단지  
롯데를 바라보는

시각만 다를 뿐이다.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1948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1967년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롯데는  
국내에 투자를 할 때마다 일본 롯데  
자금을 활용했다. 이에 국내 롯데  
계열사들이 일본 롯데와 복잡하게  
지분관계로 얽혔다.

이같은 문제를 신동빈 회장이 해결  
하기 위해 나섰다. 신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국내에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세웠다. 최대주주는 신 회장이 됐다.  
롯데지주 아래로 롯데쇼핑, 롯데  
케미칼, 롯데제과 등 66개 계열사를  
모았다.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롯데지주는 지분구조만 보더라도  
엄연한 한국 기업이다. 외부 상황  
으로 인해 늦춰지고 있지만 일본  
롯데 지분이 투입된 호텔롯데도  
한국에 상장시켜 궁극적으로 일본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자 했다. 사실 현재 호텔롯데의  
주주인 일본 롯데 관계사들도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신 회장의 지배 하  
에 있는 회사들이다. 한국과 동떨  
어진 회사들이 아닌 것이다. 실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본 롯데  
회사들을 한국 롯데와 관련된  
계열 회사로 보고 신고 의무를  
규정한 바 있기도 하다.

지난 2015년 9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롯데  
는 어느나라 기업인가”라는 의  
원의 질문에 “한국 상

법에 따라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고 근무하는 사람도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한국기업이 맞  
다”고 답했다.

롯데가 지난해 정부에 낸  
법인세만 1조5800억원이다.  
한국내 직원 수는 13만 명에  
달한다. 롯데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 논란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롯데는 2023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 걸쳐  
5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  
정했다. 이 기간 7만 명을  
채용해,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  
난 5월에는 대한민  
국 기업으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화학 공  
장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 외교 차원에서  
찬사를 받은 적도 있  
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포  
스코 등 외국인 주주비중은  
40%가 넘는 기업을  
외국기업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이에 롯데  
를 일본 기업이라 표  
현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원화값 5% 뚫… “달러당 1250원 위협”

원·달러 환율 달러당 1214.9원  
미중·한일분쟁 등에 상승 압력

원화 가치가 최근 한 달여 만에 5%나  
떨어졌다. 시장에선 달러당 1250원까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6월 말 대비 5.0%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4.7원에서 1214.9원으로 60.2원  
상승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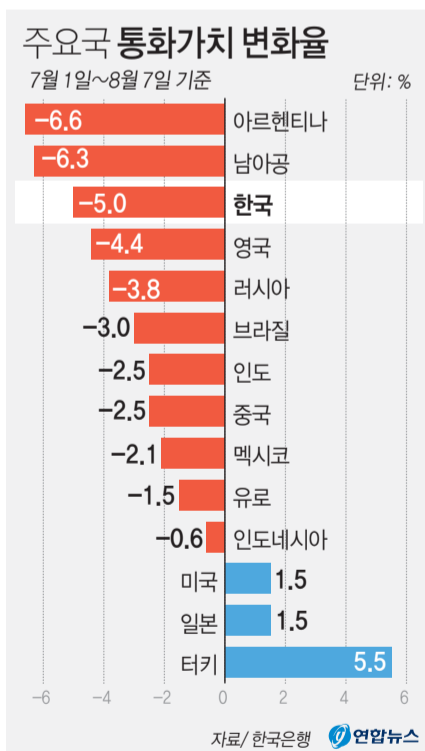
원화 가치 하락폭은 경제 규모가 큰  
신흥시장 10개국 중 3번째로 컸다. 이  
기간 한국 원화보다 하락폭이 큰 통  
화는 아르헨티나 페소화(-6.6%)와  
남아공 랜드화(-6.3%)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끌어 내렸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위안·달러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  
치(破七)’,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유독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다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37.5%로  
주요 20개국(G20) 중 3번째로  
높은 데다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  
중국이다. 가뜰이나 수출이 부진  
한 상황에서 경제의 펀더멘털(기  
초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환율이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20원 급등  
했던 ‘검은 월요일(지난 5일)’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당  
분간 하락보다 상승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전망이다. 사  
황에 따라선 달러당 1250원 가  
까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  
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  
기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겠  
지만 다른 악재가 터질 경우 급  
세 튀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  
며 “1245원까지 상승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200  
원대에 고착화해 상승 쪽으로  
기울면 외국 투자자는 물론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  
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전  
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

한국투자 증권